

‘가축유전자원 국가 현황 보고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제출

- 2014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핵심 사항을 담아
- 10년 동안 13축종 75품종·계통 가축유전자원 발굴, 국제기구에 등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 가축유전자원 관리 동향과 보존 전략 등을 담은 ‘제3차 가축유전자원 국가 현황보고서’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2027년 ‘제3차 동물유전자원 세계 현황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각국에 요청한 동물유전자원 세계 행동계획 이행 보고서 제출에 따른 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7년 제1차 동물유전자원 세계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행동계획을 ‘인터라켄 선언’으로 채택한 바 있다.

* 2007년 9월 109개 나라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된 제1차 동물유전자원 국제 기술회의에서 가축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함.

이후 각국에서 제출한 동물유전자원 세계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제2차 세계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관련기관 협조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말 보고서를 최종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국가 가축유전자원 보존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13축종 75품

종·계통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추가 발굴해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적으로 자원 주권을 확보한 국내 자원은 총 22축종 155품종·계통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2배가 증가했다.

*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서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 교류 체계로 국제적인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fao.org/dad-is/en/>)

또한, 지난 10년간 축산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25조 4천억(추정)으로 2014년(18조 8천억 원)보다 35.1% 성장했다. 전체 농업 생산액의 약 42.9%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축산농가 수는 13만 2천 호에서 10만 1천 호로 약 23% 감소했으나 가축사육 두수는 1억 7,751만 2천 마리에서 2억 378만 9천 마리로 약 15% 증가해 축산농장의 전문화·규모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농업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동화 및 스마트팜 기술의 확대 보급이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및 한·라틴아메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에 공헌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축산업은 정책, 산업적 성장을 거듭했다.”라며 “가축유전자원의 수집·평가·국제등록을 확대하고 국제기술협의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 수익 증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제출한 ‘제3차 가축유전자원 국가 현황보고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에서 8월 7일부터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족유전자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한만희 (055-960-3510)
		담당자	연구사	김승창 (055-960-3523)

대한민국
정식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